

# 순천시, 106개 사업 500억 투입 '청년친화도시' 도약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일자리 지원 등 정주 환경 조성 주거 안정으로 생애 맞춤형 복지 청년 목소리 반영 위한 협의제도

순천시가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인 '청년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정책 위원회를 개최해 약 500억원 규모의 '2025년 순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10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인재를 육성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캠퍼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과 창작공간 조성으로 지역 특화 인재를 교육·발굴, 배출된 인재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업 유치, 인건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청년들의 구직을 돕기 위한 도전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은둔·고립 청년에게 직업훈련과 참여 인센티브, 청년 성장프로젝트로 맞춤형 구직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18세부터 4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혜택도 제공한다.

10~20대 청년들의 문화활동과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패스사업(19세 대상,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원)과 문화복지카드(19~28세 대상, 연 25만원)를 지원한다. 또 청년 꿈 찾기 도서지

원 사업을 통해 취업·자격 관련 도서 구입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결과와 출산을 앞둔 30~40대 청년층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49세 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금을 생애 1회 200만원 지급하며, 임신·출산 지원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250만원 지원,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엽산제·철분제 등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서는 무주택 청년 취업자에게 전·월세 주거비를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4년간 월 최대 10만원의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세대에게는 3년간 월 최대 15~25만원의 주택 구입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청년들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를 목표로 청년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청년 정책에 대한 각종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위원회 청년 비율을 20%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 감사, 정책 자문단, 서포터즈 활동이 가능한 1845 청년 인재풀을 운영하며, 청년정책 114 누리집을 통해 지원 정책 안내와 제안을 접수하는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사회적경제조직 상생 협력' 사업 여수시,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여수시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사회적경제조직 상생 협력 지원사업' 참여 연합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3개 사가 연합체를 구성해 지역특색을 반영하면서 기업 협력 방안이 담긴 사업모델을 제시하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지침을 숙지해 시정 경제일자리과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서류검토와 대면 심사를 통해 3개 연합체를 선발하고 신제품개발, 판로지원, 교육, 홍보마케팅, 전문가 컨설팅, 재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061-659-3597)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 지리산권 노인 게이트볼 대회 성료 구례군, 12개 시군 24개 팀 참가

구례군은 지난 11일 구례군 공설운동장에서 제27회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1997년부터 실시됐으며, 12개 시군이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사)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가 주관해 구례에서 개최됐다.

12개 시군에서 총 24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전남에서 구례군·광양시·순천시, 전북에서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경남에서 진주시·거창군·남해군·하동군·함양군·산청군 등이 참여했다.

대회 결과 거창군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구례군이 준우승을, 함양군과 광양시가 공동 3위의 성적을 거뒀다.

구례=김상현 기자

## 청년 창업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고흥군, 사업화 자금 지원

고흥군이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도전프로젝트 참가자 20명을 이달 25일까지 모집한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흥군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지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30명의 신규 청년 창업가를 발굴했다. 신청 자격은 지원 공고일(2025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고흥군으로 전입이 가능한 18세~49세의 청년 예비 창업자 또는 고흥군 지역 내 창업 6개월 미만의 초기 창업자(2024년 10월2일~2025년 3월31일)이다. 참가자는 창업 교육과 선정 평가를 거친 후 최종 8명에게 최대 18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입주자 25명 모집

여수시가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25명을 모집한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은 여수시가 전세 계약한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자격 유지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모집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18~45세)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공급량은 우선공급 1호, 신혼부부 3호, 여수시민 16호, 전입예정자 5호 등 총 25호다.

올해는 신혼부부 유형이 신설됐으며, 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유형과 소득 등에 상관없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자격을 검토해 적격자를 선별하고 공개 추첨으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17호를 공급했으며, 공개 추첨 당시 분야별 최대 경쟁률이 26.9대 1에 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싱크대 교체 등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여수시 관계자는 "2028년까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을 2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여수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여수시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보리 재배 농가에 봄철 '맥류 위축병' 진딧물 방제를 당부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 장흥군, 봄철 '맥류 위축병' 진딧물 방제 당부

장흥군은 최근 남부 일부 지역 보리 재배지에서 갈색반점과 함께 황화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생장을 시작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황화현상은 맥류에 피해를 주는 보리위축병으로, 진딧물이 감엽 식물체를 흡즙한 후 건전 식물체를 흡즙하면서 감염되는 병이다.

보리는 잎이 노랗게 변하고, 밀이나 귀리는 잎이 붉은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

며 생장이 억제돼 전체적으로 생육이 불량해져 식물체가 주저앉아 버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특히 위축병은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보리위축병(맥류황화외화병)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작물의 잎 뒷면을 유심히 살피고 진딧물이 보일 경우 7일 간격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뿌려 방제하면 된다. 또 요소 2%액(물 20ℓ당 요소 400g)을 10a(아르)당 100ℓ씩 2~3

회 살포하면 생육회복에 도움이 되고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작물별 등록된 제조제, 살균제 및 살충제에 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맥류 종류와 시기별 약제를 확인해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하면 된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병해충에 감염된 맥류는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량 감소까지 이어져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미리 살피고 제때 방제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 보성군,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개최

5월3일~5일, 일림산 일원

보성군은 오는 5월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로 손꼽히는 웅치면 일림산 일원에서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발 667m의 일림산은 호남정맥의 끝자락 남해를 품은 명산으로, 산 전체를 뒤덮은 150ha 규모의 연분홍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봄철 대표 관광지다.

이번 행사는 보성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기획됐

다. 대표적으로 일림산 정상에서 보성군의 변영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례, 일림산의 사계와 생태를 담은 산림문화 사진 전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목공놀이, 편백나무 자르기 체험, 차나무 화분 만들기, 보성의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로컬푸드 판매 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후가 따뜻하고 생육 조건이 좋아 올해 철쭉은 예년보다 색깔이 더욱 선명하고 개화 시기도 적절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철쭉 명소인 일림산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와 함께 5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보성에서 피어나는 천년 차(茶)의 약속'을 주제로 '2025년 통합형 보성다향대축제'가 한국차문화공원과 보성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보성군은 올해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를 비롯해 보성군민의날, 데일리 콘서트,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보성마라톤대회, 어린이날 행사 등을 통합 연계 개최해 보성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보성=양중수 기자